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9장, 번영복음 2부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Knut Hein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잠언에 나오는 번영의 복음, 2부입니다.

9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번영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부의 획득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부의 획득을 살펴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과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혜입니다.

종종 그것은 종교적 가치와 특별히 연관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잘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함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고 잔인함은 장기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진술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특히 유익합니다. 특히 여러 잠언이 함께 있으면 개별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 속담 클러스터로 개별 잠언을 함께 읽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11장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여인은 영광을 얻지만 덕을 미워하는 여인은 수치를 당한다. 겁이 많은 사람은 궁핍해지고, 공격적인 사람은 부를 얻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상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악인은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의를 뿌리는 사람은 진정한 보상을 받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살고 악을 좇는 자는 죽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행실이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제 여기에는 상업적 실천, 경제적 참여, 심지어 실제 업무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 태도, 미덕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의 다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관대하고 의를 심는 사람, 남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습니다. 이는 모든 계층, 경제 활동,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인간 상호 작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클러스터는 또한 관대함과 관련이 있으며 설명되는 내용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대한 윤리적 의미도 포함합니다. 다시 11장 23절부터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으로 그치나니 악인의 소망은 진노로 그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지만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보류하고 궁핍만 겪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얻게 된다.

곡식을 아끼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곡식을 파는 자는 머리에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들 중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번영형 가르침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즉 24절입니다. 일부는 거저 주지만 더욱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보류하고 궁핍만 겪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진술로서 나는 이 진술의 적용을 완전히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곳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위-결과 연결이나 연결로 만들 때인데, 여기서는 항상 이렇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질문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말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자선이나 헌금의 종류가 아닌, 취약한 사람에 대한 것이든, 종교 활동에 대한 것이든, 예를 들어 종교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현대 세계의 복음전도나 기타 기독교 자선 사업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교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가격, 관대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속담은 게으름, 사악함, 종교적 위선을 연결합니다.

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심은 죽으니, 게으른 손이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지만 의인은 베풀고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가증한 것이니라 악한 의도로 가져온 것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로 관련 없는 세 가지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25, 26, 27이라는 간접적인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진술 사이에 개념적 연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욕망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고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원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일할 의향이 없습니다(25절). 26절에는 또한 갈망과 갈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일토록 탐하는 악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관대하게 주는 의인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26절의 악인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25절의 게으른 자와도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6a절처럼 악인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27절과 연결됩니다. 악인은 무엇인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대하고 관대하다고 생각되는 기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전에 드리는 일이지만, 그들이 옳은 일을 하면서도 가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한 의도로 가져오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악한 의도로 주님께 관대하게 드리는 것이 지금은 생각하지만 원하는 결과, 즉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냉철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대하게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빛을 지고 계시며 나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맥락에서 볼 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린다면, 잠언 31, 27장에 따르면 그것은 사악한 희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악하고 이기적인 의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구절이 함께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22절 9절입니다. 관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가 방금 설명한 태도와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싶습니다. 즉 여기에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기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에 설명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빵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관대함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복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질문은 실제로 동기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관대함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셜 구성 요소와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잠언에 나오는 번영에 대한 가르침의 또 다른 매우 두드러진 측면, 즉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잠언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것들과 내가 이미 한 진술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진정한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부, 즉 진정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의무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조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부를 얻는지 참아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섹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암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갑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몇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19장 2절. 지식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너무 서두르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처음에 빨리 취득한 부동산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풍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서두르는 사람은 누구나 원할 때만 온다.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념할 만큼 현명해지십시오. 5절. 네 눈이 그것을 보면 없어지나니. 그것은 갑자기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 필사적으로 부자가 되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종종 그들의 관계가 고통받고, 가족이 고통받고, 직원이 고통받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고통받고,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담은 현실적 측면에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부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볼 때, 실제로 당신이 그것을 갖는 순간 그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는 나쁜 사업 벤처나 외부 경제 위기, 법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빠르게 손실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이 그 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이 하늘로 날아가 지금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8장 20절입니다.

충실한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는 계획은 효과가 없고, 성과도 없으며, 그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애당초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도덕적 결과, 사회적 결과, 종교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언과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은 잠언 그룹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부당 이득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헛되고, 부당하게 얻은 것도 헛됩니다.

10장 2절과 3절. 불의로 얻은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의인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갈망은 물리치십니다.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쌓는 지식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파멸을 가까이 하느니라 .
부자의 부는 그들의 요새이고,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들의 파멸이다. 의인의
샅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이익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듣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꾸지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갑니다. 다시,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부가 그들의 요새이고,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들의 파멸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읽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요새를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망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의인의 샅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이익은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들을 때 부자의 부의 요새는 의로운 생활 방식의 샅이 생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인의 이득과 대조되는 것은, 결국 파멸하게 될
악하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
전체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 그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챕터 11인 것 같아요.

11장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느니라

부자의 부는 그들의 견고한 성이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것은 높은 벽과 같다.
아니면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시들겠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리라.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읽고 있는 다른 구절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3장, 11장.

급히 모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조금씩 모으면 늘어나는 법이다. 15장 27절.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단기간 부자가 되는 계획이 부당 이득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명한 인상이
나타납니다. 대신, 잠언에서는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권합니다. 게으름은 결국 가난하게 되거나 사람들을 유혹적인 단숨에
목표, 즉 적은 노력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으로 유혹합니다., 도덕적
타협과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 따라서 여기서 장려되는 것은 행동보다 인격,
물질적 이득보다 진정한 번영입니다.

이제 나는 번영을 얻지 못하게 하는 태도와 행동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실제로 게으름을 다루고 근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잠언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게으름은 파멸로 이어진다. 나는 책에서 게으름과 관련된 강한 감정을 맛보기
위해 여기에서 몇 가지 더 긴 섹션을 읽고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모한테 가세요, 게으른 놈들 아! 그 길을 생각하고 현명해지십시오.
우두머리나 관원이나 통치자가 없이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그
재물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름뱅이들이여, 언제까지 거기 누워 있을 건가요?
언제 잠에서 깨어날 것인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곤핍이 무장한 용사 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측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어리석은 자의 포도원을 지나다가 보니 온통 가시덤불이
무성하였느니라. 땅은 췌기풀로 뒤덮였고 돌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보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곤핍이 무장한 용사 같이 이르리라. 마찬가지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배고픔을 겪을 것이다.

나는 게으름이 종종 조롱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는 몇 가지 잠언과 구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9장 24절.

게으른 사람은 접시에 손을 묻고 입에도 가져오지 않는다.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혹은 26장 13절부터 16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이 돌쩌귀를 따라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도 침대에서 돌아다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접시에 손을 묻고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입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으름은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아이는 슬기로워도 추수 때에 자는 아이는 수치를 당하느니라. 반대로, 이제 저는 몇 구절을 강조하여 더 넓은 의미에서 성공, 번영으로 이끄는 데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을 지혜, 의로움, 사회적 명성과 연관지으면서도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 더욱 흥미롭게도 악한 사람이나 범죄자와 대조합니다.

이거 들어 봐. 12장 11절.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풍족하여도 헛된 일을 좇는 자는 지각이 없느니라.

13장 2절. 의인은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먹거니와 배신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도다.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가득하고 수고로 말미암아 상이 있느니라.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노역을 하게 되느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잉여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 강제로 일하게 된다.

13장 4절. 게으른 자의 식욕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식욕은 풍족하느니라. 14, 23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20장 13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리라. 눈을 뜨면 빵이 풍족할 것이다.

20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풍족하게 하여도 조급한 자는 궁핍할 뿐이느니라. 여러분은 정직하고 힘든 노동, 노동과 투자를 피하고 값싸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계획을 통해 성급함, 빨리 부자가 되는 것, 번영을 얻기 위한 게으른 방법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번영 복음의 가치를 설교하는 사람들과 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번영을 얻고 싶다면, 부지런하고 일관되며 정직한 일을 대신하여 기독교 사역에 관대하게 기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 사역에 기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 게 있나요? 아니면 주머니를 너무 깊이 파서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보다 적은 돈만 남겨두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관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반쯤 희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상 없이 버린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의 실용적인 조언을 계속 읽으면서 번영의 복음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만큼 관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번영형 가르침과 설교에 나오는 이러한 말들 중 많은 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와 관대함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셨고 당신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하고 더욱 관대해지려는 동기로 여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3장 9~10절을 보면 2장이나 3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근면과 의로움,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름과 사악함과 대조되거나 대조되는, 한편으로는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수치심도 있습니다. 10장 20-22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으시느니라 12장 27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을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습니다. 일이 게으른 사람은 파괴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18장 9절. 그리고 21장 25절.

우리는 이미 이것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심은 해로우나니 이는 게으른 손이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리고 다음 두 구절.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지만 의인은 베풀고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가증한 것이니라 악한 의도로 가져온 것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은 게으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용주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고용주에게 마치 이에 식초가 되고 눈에 연기가 됨 같으니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번영과 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실제적인 요점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구절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일에 주의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다음은 현명함이다. 20장 14절.

나쁘다, 나쁘다라고 구매자가 말합니다. 그런 다음 떠나서 아마도 그가 방금 쓴 가격에 구입한 것에 대해 자랑할 것입니다. 동기 부여.

16, 26. 일꾼의 식욕이나 배고픔이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을 재촉합니다.

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16, 7절.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은 장 20절. 일에 주의하는 자는 형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부자가 되기 위해 권장되지 않는 또 다른 행동. 그 중 하나가 뇌물이다.

15장 27절.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또는 17, 8. 뇌물은 뇌물을 주는 사람의 눈에 마술석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들은 번영합니다. 17, 23절. 악인은 공의의 길을 굽게 하려고 숨은 뇌물을 받습니다.

18, 16. 선물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19, 6. 관대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것입니다. 적절한 투자.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곡식도 없느니라. 소의 힘으로 풍성한 농작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27. 일은 밖에서 준비하라.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그 후에 집을 지으십시오. 27, 18.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27절 23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양 떼의 상태를 잘 알고 네 소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재물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면류관이 대대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이 마르고 새 움이 나며 산의 풀이 거두어지면 어린양이 너희의 옷을 주고 염소가 밭의 값을 삼을 것이니라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고 네 여종들의 양식이 되리라. 28, 19.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들은 왕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사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18, 20~21. 입의 열매로 배를 채우느니라.

입술의 양보가 만족을 가져온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능숙한 혀와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말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분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 사회적 명성, 물질적 번영, 진정한 번영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언서가 이것에 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직접적인 기본 상식 유형의 조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 많은 부분이 올바른 종류의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산물로 종종 물질적 번영을 촉진할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는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선하고 풍요롭고 건강하며 보람 있는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웃, 가족과도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의 복지에 기여하는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지역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존경심을 갖는 점을 포함하여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잠언이 더 큰 관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돈과 번영, 물질적 가치보다 인격과 미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를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범위의 구절과 구절 그룹, 빈곤에 대한 진술, 그리고 사회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고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띕니다. 그들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신학적이다.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지를 보여 주는 다양한 잠언이 있지만, 그러한 참여가 보람 있고 윤리적이며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인이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7, 17, 친구는 항상 사랑하고 친척은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 태어난다. 18, 24, 어떤 친구는 우정을 쌓지만, 진정한 친구는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 더 친밀합니다. 19장 4절 재물은 친구를 많이 사귀나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같은 장의 6절과 짝을 이루십시오. 많은 사람이 관대한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7절, 가난한 자는 자기 친족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그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겠느냐? 그들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 잠언은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과 부수적으로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을 지배할 권한은 없지만 말입니다. 18, 23,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지만 부자는 거칠게 대답합니다. 22, 16, 자기를 부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것은 해를 입을 뿐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후원에 대한 그리스-로마의 생각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많은 현대적 태도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자에게 주는 것은 손실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위해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종종 연습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부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창출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며 이 특별한 속담은 특히 상업 사회에서 항상 두드러진 태도나 논쟁이었던 이런 종류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장 22~23절, 가난한 자의 가난함을 인하여 강탈하지 말며 가련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지니 여호와와 그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생명을 멸하시느니라. 다른 잠언들은 신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호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431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니라 1705년,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모욕합니다.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17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빌려주지 않으며 전액을 갚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관대하게 베푸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어떤 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히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타겟으로 삼는 조직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역의 수장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기독교 사역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속담으로는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절 13절, 네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네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1절, 큰 부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2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으신 이시니라. 22절 9절, 관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이것은 최고의 번영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8장 27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되 눈을 가리는 자는 저주를 많이 받으리라.

또는 29.7, 의인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안다. 악인은 그런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8.22의 그 반대와 비교해보세요. 구두쇠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고 손실이 반드시 올 것을 모른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은 강조할 시간이 없지만 많은 속담 중에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권력자의 책임을 탐구하는 다양한 속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상당한 재정적 안녕을 통해서든, 공공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언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리더십 역할,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치적 권력, 또는 더 넓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기업 및 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할 속담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장 12절부터 14절. 통치자가 거짓된 말을 들으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압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눈에 빛을 주셨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정하게 재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음, 여기에 현대 정치인과 통치자를 위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30장 13절부터 15절. 눈이 얼마나 높은지, 눈꺼풀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가 있습니다.

그 이는 칼이요 그 이는 칼이라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사람 중에서 궁핍한 자를 삼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쥐, 쥐, 그들은 울어요.

31장 4절 이하입니다. 오 르무엘이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통치자가 독한 술을 원하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가 마시고 판결을 잊어버리고 모든 고난 받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리라. 모든 빈곤층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시오. 이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섹션이 생겼습니다. 위험하고 재정적으로 파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보증 및 담보 대출에 관한 이 강의에서는 이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연관성은 실제로 빠르고 풍부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도덕적으로도 간주되는 고금리를 포함하는 위험한 사업

벤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출과 대출에 관한 몇 가지 구절.

22.7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고, 빛진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 28.8 엄청난 이자로 부를 늘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솔직하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종교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해관계로 부를 모으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빨리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잠언의 결론 부분에 있는 진술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잠언의 끝에서 두 번째 장과 잠언 30장의 모음집을 수집하는 특이한 저자이자 수집가인 수수께끼의 논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나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이세요. 아니면 내가 배불러서 당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누구 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다.

물질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건설적이고 현명한 태도에 대한 깊은 인류학적, 신학적 통찰을 이끌어 내는 이 기도에는 신중한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번영에 관한 두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말했던 것, 즉 잠언은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도록 돕는 건전한 태도, 가치, 미덕 윤리를 육성한다는 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삶. 그리고 야구르는 이 기도에서 가난은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사람들 자신의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잠언에서 보았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 전반에 걸쳐 삶의 현실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은 종종 부당한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은 종종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도덕적 위기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은 때때로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눈에 띄게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기술과 끈기를 통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순전한 행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종류의 가족에서, 사회의 적절한 사회적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때때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완전히 무작위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상황이 편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들의 부는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견고한 탑입니다.

아구르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다소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언서는 극도로 가난한 우리와 극도로 부유한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당신의 부가 진정으로 당신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난이 당신이 모퉁이를 깎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부자로서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경제와 재정의 양극단과 그 사이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잉여금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 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지혜가 담긴 놀라운 잠언서에서 나오는 참된 번영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Knut Hein입니다. 9회기 잠언에 나오는 형통의 복음 2부입니다.